

제8회 『사회연구 학술상』 장려상 수상 논문

청소년 자살의 심리적 과정 및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지지의 보호효과*

이은희 · 조윤자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낮은 자아정체감이 어떤 심리적 경로를 통하여 자살생각에 도달하는지와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경우에 청소년 자살을 촉발한다는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에 근거하여 이들이 실제로 청소년 자살의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산과 경남에 소재한 5개 고등학교 25학급의 650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정체감이 우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정체감과 우울이 인지적 와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문제해결력이 완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와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완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학교상담자들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진단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문제해결력을 높여주는 상담 전략이, 인지적 와해 상태가 심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를 높여주는 상담 전략이 자살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결국 이 연구는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상담적 개입 방안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자아정체감, 우울, 인지적 와해, 자살생각, 문제해결력, 사회적 지지

이은희 경남대학교 심리사회학부 조교수(심리학). ehlee@kyungnam.ac.kr (교신저자)

조윤자 경남대학교 심리사회학부 석사(교육학). u57080@empal.com

* 이 논문은 2008년도 경남대학교 학술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1. 서론

청소년의 자살행동은 청소년의 주된 3대 사망원인 중의 하나로서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소년의 빈번한 자살로 인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사망의 변화는 1994년 인구 10만 명당 10.5명으로 전체 사망원인 순위 9위에서 2004년에는 자살사망률이 14.7명이 더 증가하여 전체 사망원인 순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김형수, 2006). 그 중에서도 청소년의(10세-24세) 경우 사망 원인 중 교통사고가 24.0%로 1위이며 다음으로 자살이 22.3%로서 다른 연령층보다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청소년의 자살율도 인구 10만 명당 2001년 5.4명에서 2005년 7.6명으로 40.7%증가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청소년 정신질환 발생 급증”, 2007),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764명의 초·중·고생이 자살했으며 이중 고등학생이 전체의 68.3%인 522명이었고 중학생 218명(28.5%), 초등학생 24명(3.2%) 등인 것으로 집계되었다(“7년간 초·중·고생 자살자 764명”, 2007). 또한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공개한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결과, 중고생의 23.4%는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며, 5.5%는 지난 1년간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고생 23%”, 2008). 이러한 통계는 점점 증가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소년 자살의 원인을 확인하는 실증적 연구와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청소년 자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자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고 자살 예방프로그램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김기환·전명희, 2000). 특히 효과적인 자살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살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risk factor)들이 어떻게 자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위험요인들이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여겨지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자살위험요인으로서 우울(신민섭·박광배·오경자·김중술, 1990; 정영주·정영숙, 2007; Chioqueta & Stiles, 2005; Groholt, Ekberg,

Wichstrom, & Haldorsen, 2000; Kelly, Lynch, Donovan, & Clark, 2001; Wild, Flisher, & Lombard, 2004), 불운한 생활사건(King et al., 2001; Mazza & Reynolds, 1998; Steinhausen, Bosiger, & Metzke, 2006), 생활 스트레스(고재홍·윤경란, 2007; Metha & McWhirter, 1997; Wilson et al., 1995), 자아취약성[낮은 자아존중감(Groholt et al., 2000; McGee & Williams, 2000; McGee, Williams, & Nada-Raja, 2001), 낮은 자아정체감(김기환·전명희, 2000; 윤성림·윤진, 1993; 이경진·조성호, 2004), 정서적 자기규제의 부족(Harter, Marold, Whitesell, & Cobbs, 1996; Osman et al., 2003; Rutter & Behrendt, 2004)], 사회적 지지의 결여(임수영, 1996; Rutter & Soucar, 2002), 무망감(Harter et al., 1996; Mazza & Reynolds, 1998; McGee et al., 2001), 인지적 왜해(신민섭, 1993; 정영주·정영숙, 2007)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 자살 보호요인은 내적 보호요인, 외적 보호요인, 정서적 안정성의 세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Osman et al., 1998). 내적 보호요인으로는 자아개념과 탄력성(Harter et al., 1996; Osman et al., 1998)이, 외적 보호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Canty-Mitchell & Zimet, 2000; Clara, Cox, Enns, Murray, & Torgrude, 2003; Greening & Stoppelbein, 2002; Rutter & Soucar, 2002)가, 정서적 안정성 요인으로는 정서적 자기규제, 주장적 의사소통 방식, 정서적 혼란을 언어화하는 능력(Harter et al., 1996; Osman et al., 2003)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정서적 안정성 요인은 청소년들이 불운한 생활사건에 직면하게 될 때 이들이 자살사고에 대항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잠재력으로서(Rutter & Estrade, 2006), 급작스럽게 우울이나 무망감에 빠지거나, 적개심에 불타지 않고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도록 하는 능력이다(Beevers & Miller, 2004; Gutierrez, Rodriguez, & Garcia, 2001).

청소년 자살 시도의 급격한 증가는 정체감 혼란의 증가와 연결되는데(김기환·전명희, 2000; Wodarski & Harris, 1987), 어린 시절 안정되고 분화된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했을 때 부모에 대해 적대감을 갖게 되고 그것이 자녀에게 죄책감을 유발시켜 부정적인 자기지각과 무력감을 일으키고 아동의 자살행동을 초래한다(Pfeffer, 1981). 자살은 여러 단계를 거

치면서[실패·좌절 스트레스 → 내부귀인 → 부정적 자기인식 → 부정적 정서(우울) → 인지적 왜해 → 자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의사결정과정으로 볼 수 있다(Baumeister, 1990). 이 과정에서 우울한 정서가 오래 지속되면서 부정적 인지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인지적 왜해(cognitive deconstruction)는 Baumeister(1990)의 자살이론의 핵심개념으로서 정신기능의 협소화로 일상사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를 거부하고 모든 것을 피상적, 무가치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상태는 자살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내적인 조건들을 약화시켜서 부정적으로 인식된 자기 자신과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탈출하는 수단으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이윤주, 2008). 인지적 왜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와 관련된 계획이나 관심이 결여되어 있으며, 삶의 의미를 거부하고 삶을 비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자아정체감을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Baumeister(1990)가 제안한 인지적 왜해 개념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어떻게 자살사고에 이르는지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자살에 이르게 되는 자살관련 변인들의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살생각과 관련된 취약한 자아특성으로서 자아정체감을 선정하였으며 낮은 자아정체감 수준이 우울과 인지적 왜해 과정을 거쳐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다.

Hesketh, Ding 및 Jenkins(2002)는 가난이나 불공평성 같은 거대 환경과 생활사건 같은 미세 환경이 각 개인의 우울소인에 따라서 우울증상을 유발하고, 우울증상이 자살생각을, 자살생각이 자살계획을, 자살계획이 자살실행을 유발하여, 결국은 자살실행을 거쳐서 실제 자살이 일어나는 자살병인론의 도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환경적 요인이 우울증상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상이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과정에 치료적 개입을 통하여 예방하거나 그 부정적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살의 보호 요인 중 외적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를, 상담적 개입을 통하여 변화시킬 수 있는 정서적 안정성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인 문제해결력을 선정하였다.

문제해결은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 상황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식들을 발견하려는 개인적 시도들로서 자기 생성적 인지·정서·행동적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D'Zurilla & Nezu, 1990). 문제해결능력의 결핍은 우울증상(D'Zurilla & Sheedy, 1991; Heppner, Kampa, & Brunning, 1987) 및 자살생각(하상훈, 2000; Chang, 1998; Dixon, Heppner, & Anderson, 1991; Priester & Clum, 1993)과 연결되며, 우울증에 관한 인지행동적 치료이론들 중 문제해결 접근 이론들은 내담자들이 문제 장면에서 보다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처행동을 훈련시키는 과정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지의 내용과 방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포함한다(이장호·정남운·조성호, 2005). 또한 취약성-스트레스 모델(Schotte & Clum, 1982)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이 결핍된 사람들은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자살생각을 포함한 자살행동의 위험성을 더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통하여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문제해결력이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Schotte & Clum, 1982, 1987).

결국 이 연구에서는 Bumeister(1990)의 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 자살의 선행요인으로서 부정적 자기인식인 낮은 자아 정체성을 상정하여, 청소년의 낮은 자아정체성이 부정적 정서와 인지적 와해를 매개로 삼아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Hesketh 외(2002)의 자살 개입 도식, 우울증에 대한 문제해결접근, 자살에 대한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변인들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부모, 친구, 교사)와 문제해결력이 이들의 부정적 효과를 완충하는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밝혀서 청소년 우울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적 개입방안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자살과 청소년

청소년의 자살은 다른 문제행동보다 그 심각성과 부정적인 결과가 크다. 다른 문제행동은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 그에 대한 처치와 노력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어느 정도 갖게 되지만, 자살의 경우는 이러한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임영식·오세진, 1999). 그런데 청소년의 자살은 자살 행동(suicide behavior) 그 자체만이 아니라 자살시도(suicide attempt), 자살의도(suicidal intent), 그리고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을 포함하는 일련의 자살행동으로서(Ladame & Jeanneret, 1982; Reynolds, 1988) 자살행동을 자살생각에서 자살계획, 그리고 자살의 시도에 이어 죽음에 이르는 자살로 연결되는 하나의 연속체로 가정하여 자살생각에서부터 출발해야한다(박병금, 2007에서 재인용). 즉 자살을 생각에서 행동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연속선으로 볼 때,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자살시도로 이어지지 않는으나 이것이 자살행동의 중요한 예언지표가 될 수 있으며,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민병근 외, 1986; 정철순·임숙빈·고효진, 2001; Carlson & Cantwell, 1982; Stewart et al., 2006) 자살 생각이 높은 집단에서 자살 시도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자살행동을 연구할 때 자살생각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자살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에서는 자살의 배경이 되는 취약성 요인과 자살을 일으킬만한 환경적 스트레스 촉발사건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김기환·전명희, 2000). 청소년들은 자살을 일으킬만한 촉발 사건을 경험할 때, 이에 대한 내적영향력이 자신의 통제력을 넘어서게 되면 자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촉발사건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이 결핍된 경우는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자살을 택할 수 있는데, Levenson과 Neuringer(1971)는 대인관계 문제나 갈등이 발생할 때 대인관계 문제 해결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 자살을 하는 것을 받

전하여 문제해결능력의 결핍이 자살의 촉발요인임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Csorba et al., 2003; Spirito, Valeri, Boergers, & Donaldson, 2003; Stewart et al., 2006) 자살 시도자들이 통제집단에 비해서 대인관계 갈등을 더 심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아정체감의 부족, 인지적 왜해, 우울 등을 개인적 취약성 요인으로 볼 수 있고, 문제해결력의 결핍은 촉발사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살행동을 자살생각으로 측정하였으며, 청소년 자살의 개인적 취약성 요인인 자아정체성 부족, 인지적 왜해, 우울이 자살생각에 어떠한 심리적 기제를 통하여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개인적 취약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촉발사건으로 작용하였을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지지가 주어질 때 그러한 취약성 요인들이 청소년의 자살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시킬 것으로 가정하였다.

2) 자살과 자아 정체감

Baumeister(1990)는 자살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스트레스, 즉 기대하는 상황과 현실상황과의 괴리와 그 스트레스들이 자기에게 주는 의미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욕구와 합해져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즉 한 개인이 이루고자 하는 높은 기대수준과 현실적인 상태가 그에 도달하지 못할 때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가 생기고, 괴리가 생긴 이유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자기비난과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통하여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자아가 취약해져 자살과정의 연결고리가 촉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feffer(1981)는 자살시도 아동의 치료 경험을 통해서 부모의 경직되고 완고한 양육 방법이 아동의 자아분화를 방해하여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 형성에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고 보았다. 즉 아동이 자신의 안정되고 분화된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병리적 동일시(pathological identification)는 아동이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방해하고 그 결과 형

성된 부모에 대한 적대감이 자녀에게 죄책감을 유발시켜 부정적인 자기 지각과 무력감을 일으키고 아동의 자살행동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Wodarkski와 Harris(1987)도 Pfeffer(1981)와 같은 시각에서 청소년의 자살 행동을 설명하였으며, 이경진과 조성호(2004)도 자아정체감의 하위 요인인 자기수용의 부족이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연관됨을 확인한 바 있어서 청소년 자아정체감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그 관련 변인으로 자아 정체감 형성과 가정환경 변인임을 확인한 윤성림과 윤진(1993)의 연구, 청소년 자아 정체감이 우울을 통하여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박현숙(2007)의 연구들을 종합하여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이 우울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3) 자살과 우울 및 인지적 왜해

우울증은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급격하게 증가하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발생률이 더 높고 이런 경향을 청소년기에 시작해서 성인까지 지속된다(Weissman et al, 1996). 또한, 우울증은 청소년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발달적 특징 중의 하나이지만 그 강도(intensity)와 심도(severity)가 지나칠 때 청소년 자살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Callhoun, 1972; Miller, 1975)

자살사고와 자살행위가 우울증의 진단 준거이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자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서적 요인으로서 우울은 청소년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청소년의 자살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다(신민섭, 1993; Groholt, Ekberg, Wichstrom, & Haldorsen, 2000; Kelly, Lynch, Donovan, & Clark, 2001; Wild, Flisher, Lombard, 2004).

Beck Kovocs 및 Weissman(1979)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 행동을 조사하면서 우울의 인지적인 증상인 절망, 즉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살과 가장 관련이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실증적 연구에서도 부정적 인지(무망감, 감소된 자기효능감과 인지적 왜곡)가 자살과 연합되어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Stewart et al., 2005; Stewart et al., 2006).

우울이 자살과 관련된 주요변인이기도 하지만 우울 정서가 또 다른 부정적 인지를 유도하여 자살 충동이 발생하느냐에 대해서는, 자살 시도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의사결정과정(Baumeister, 1990)이므로, 우울한 정서가 오래 지속되면서 부정적으로 인지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와해는 Baumeister(1990)의 자기 도피 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통합 이론이다. 즉 개인이 우울한 정서를 스스로 견디기 어렵다고 지각하면 이런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을 없애줄 수 있는 수단을 갈구하여 인지적 와해가 일어나며, 인지적 와해 상태는 자살을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기제들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결국 자살 시도에 대한 수용성을 증가시킨다고 본다.

정영주와 정영숙(2007)은 Baumeister(1990)의 자기 도피 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우울이 인지적 와해를 통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자아정체감이 우울과 인지적 와해를 통하여 자살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4) 자살과 문제해결능력 및 사회적 지지

문제해결이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과정으로써 욕구의 대상에 대한 현실적인 행위의 실현(Wilson et al., 1995)으로서, 김경희(1998)는 자신이 무엇인가 원하고 있지만 그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을 문제로 보면서 문제의 해결이란 이러한 문제 상황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 상태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Jahoda(1958)가 문제 해결 능력이 긍정적인 정신 건강 척도임을 주장한 이래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이 사회적응에 대한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하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여러 연구들에서 문제해결력이 적응에 대한 스트레스의 효과를 완화시켰으며(Printz, 1999; Prister & Clum, 1993), 자살생각에 대한 스트레스의 효과를 완화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Schotte & Clum, 1982, 1987).

청소년들은 촉발사건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결핍된 경우에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Clum & Lerner 1990) 대인 관계상의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 결핍된 청소년이 문제 해결 방안으로 자살을 선택한다(Levenson & Neuringer, 1971). 이러한 맥락에서 Felner와 Silverman(1995)은 특정 자살원인의 방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자살을 유발시킬만한 사건이 일어날 때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내적 적응력이나 문제해결능력 등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할 때는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문제해결능력이 충분할 때는 청소년들이 개인 취약성 요인이 이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켜주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살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고립감과 사회적 지지의 결여로 고통을 받는다(Ellis & Newman, 1996/2005). 사회적 지지란 가족, 친구 등의 타인과의 의미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모든 자원을 말하는데, 사회적 지지가 충분할 때에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에 부딪혔을 때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촉진시키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우울증 증세를 유발할 수 있다(양치식, 1999). 즉 충분한 사회적 지지 기반과 환경적인 안정 및 부모·친척 간의 원만한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가까운 친구나 자기를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문제가 생겨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충동적 혹은 절망적으로 자살행동을 하게 된다(홍강의, 2008).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적 지지기반인 사회적 지지 체계가 제대로 기능하면 자살의 예방적 역할을 하지만 역기능적으로 기능하면 자살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친구, 가족, 사회적 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자살행동의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Clara 등(2003)의 주장과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이 인지적 외해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영주와 정영숙(2007)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취약성 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제시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과 우울, 인지적 왜해, 자살생각은 어떠한 관계인가?
- 둘째,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살생각 간에 우울과 인지적 왜해가 매개역할을 하는가?
- 셋째, 사회적 지지와 문제해결력이 이 연구에서 확인된 경로들 간의 관계에서 완충역할을 하는 조절효과가 있는가?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부산과 경남 지역에 소재한 5개 고등학교이며, 이 중에 남녀공학이 3개교, 남자고, 여자고가 각 1개교이었다. 학교당 1, 2학년 2학년씩 총 20개 학급 650명을 대상으로 하여 담당교사의 협조를 얻어서 수업시간 중에 자아정체감 척도와 우울 척도, 인지적 왜해, 자살사고, 사회적 지원 및 문제해결력 척도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불성실하게 답변한 설문지와 응답문항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고 628명의 자료 중 친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58명의 자료를 제외한 570부의 자료를 가지고 사전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변량 극단치로 추정되는 16부를 제외한 554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1학년이 381명(62.25%)이고 2학년이 231명(37.75%)이었으며, 남학생이 287명(46.90%), 여학생이 325명(53.10%)이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17.37세(표준편차 .49)이고 17세가 381명(62.25%)이고, 18세가 231명(37.75%)이었다.

2) 조사도구

가. 자살생각 척도(SSI):

현재의 자살생각의 수준을 측정하는 Reynolds(1988)의 자살생각 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30문항 중 박병금(2007)이 요인분석과 전문가 6인의 논의를 거쳐 선정한 14문항을 사용하였다. “어떻게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 “언제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다”, “자살할 때 유서에 무엇이라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했다” 등의 문항에 “전혀 생각한 적이 없다(0점)”에서 “거의 매일 생각한다(6점)”까지의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많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Cronbach α)는 .93으로 나타났다.

나. 자아정체감 척도:

박아청과 이승국(1999)이 박아청(1996)의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의 8개 영역 중 “정체감 혼미”와 “정체감 유예” 등의 두 영역을 제외한 주체성, 자기 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의 6개 하위영역으로 재구성한 48문항을 사용하였다. 주체성은 8문항(예: 나는 내일을 잘 처리할 수 있다.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관적인 역할 혹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지배하여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느낌의 정도이다. 자기 수용성은 8문항(예: 나는 이 세상에서 있으나 마나 한 존재이다, 나는 내 자신이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기의 실체와 성격특성 및 제반능력과 취약점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정도이다. 미래 확신성은 8문항(예: 나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지 잘 모르고 있다. 나는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지 알고 있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의 장래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있는 정도이다. 목표지향성은 8문항(예: 나는 내일을 시작할 때는 열성을 보이나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 나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몰두하지 못한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 또는 실현하려는 의지의 정도이다. 주도성은 8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의 충고에 무턱대고 따르는 편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잘 이끌리는 편이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지능력의 정도이다. 친밀성은 8문항(예: 나는 모임에 나가면 가끔씩 사람이 적은 곳이나 구석에 앉는다. 나는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려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자신과 타인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정도이다. 각 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원래의 척도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다. 우울 척도: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Radloff, 1977)를 전경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우리나라에 맞게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척도 4점 척도의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지난 1주 동안 "평소에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우울했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등의 문항에 자신이 느끼고 행동한 정도를 "극히 드물게(1일 이하)(0점)"에서 "거의 대부분(5-7일)(3점)"까지의 4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라. 인지적 와해 척도:

신민섭이(1993) 제작한 정상집단용 단축형 진위형 35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도피척도(Scale for Escape from Self: SE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Baumeister(1990)가 제시한 인지적 와해 상태의 특성인 시간적 조망의 축소, 인지적 경직성 및 구체성, 의미의 거부, 탈역제와 수동성 및 감정의 결여를 측정한다. "요즈음 생활이 한없이 권태롭다", "예전과는 달리 모든 일을 극단적으로 생각한다", "나는 단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다" 등의 문항에 "아니오(0점)", "예(1점)"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지적 와해정도가 심함을 의미하며,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마. 문제해결력 척도:

Heppner와 Petersen(1982)의 PSI(The Problem Solving Inventory)를 임현우, 이동귀 및 박현주(2004)가 번안한 32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 척도는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Problem Solving Confidence), 접근-회피 성향(Approach-Avoidance), 개인의 통제력(Personal Control)의 3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은 11문항(예: 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개는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생각해 낼 수 있다, 처음에 뚜렷한 해결방안이 떠오르지 않아도, 나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제해결 활동에 임할 때 느끼는 자기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자기 확신감이다. 접근-회피 양식은 14문항(예: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나는 무엇이 제대로 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지 않는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한 후에, 나는 기대했던 것과 실제 결과를 비교 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제해결 활동을 시도하거나 그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 행동양식이다. 개인의 통제력은 5문항(예: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면, 나는 그 상황에 대처하는 내 능력을 의심한다. 나는 쉽게 결정내리고 나중에 후회 한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제해결 과정에서 자신의 정서에 대한 자기 통제력의 믿음정도이다. 각 문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6점)”까지의 6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의 자신감이 있고, 접근 양식을 가지며 개인적 통제를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1로 나타났다.

바. 사회적 지지 척도:

박지원(1985)이 개발하고 이를 김연수(1995)가 수정, 보완, 재구성한 부모, 담임교사, 친구의 지지를 측정하는 5점 척도로 구성된 25문항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지지 척도는 한 개인이 부모, 교사, 친구 및 이웃사람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는 도움으로 사랑, 이해, 격려, 신뢰, 관심, 칭취 등의 정서적 지지 7문항

(예: 그들은 모두 내가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그들은 모두 함께 있으면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 등), 필요한 돈, 물건 등을 제공하는 물질적 지지 6문항(예: 그들은 모두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아무리 큰돈이라 해도 마련해 준다, 그들은 모두 무슨 일이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해 나를 도와준다 등), 문제해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6문항(예: 그들은 모두 내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 그들은 모두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 주고 확실하게 해 준다 등), 칭찬이나 인정 등의 평가적 지지 6문항(예: 그들은 모두 내가 취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공정하게 평가해 준다. 그들은 모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나의 일을 인정해준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 “모두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모두가 그렇다(5점)”까지의 5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3) 분석

LISREL 8(Jöreskog & Sörbom, 1993)을 사용한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하여 공변량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χ^2 값의 부합도가 표본의 크기에 심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료의 부합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NNFI(Non-Normed-Fit Index, Marsh, Balla, & McDonald, 1988), CFI(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90),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Steiger, 1990), χ^2 , χ^2 에 대한 p 값 등 다중 통계치들이 사용되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부합도 지수들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지수들이 .90을 초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Maruyama, 1998) 일반적인 기준과 RMSEA 지수는 .05이하가 바람직하지만 .08이하까지는 수용가능하다(Browne & Cudeck, 1993)는 기준에서 전반적인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공변량 구조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초모형과 표집의 자료가 잘 부합되지 않을 때 부합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모형수정을 시도하나 이

과정은 자료 주도적 과정으로서 자료 표집의 특성에서 오는 우연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정된 모형을 다른 표집이나 전집에 일반화 하는데는 문제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Silvia & MacCallum, 1988; Maruyama, 1998). 또한 MacCallum, Roznowski 및 Necowitz(1992)도 두 개의 대집단 연구를 통하여 수정된 모형이 표집의 크기와 관계없이 불안정하며 대표집을 제외하고는 교차타당도 결과도 불안정하여 다른 표집에는 지지되지 않음을 증명한 바 있다. 그래서 시초모형이 잘 부합될 때에는 부합도를 높이기 위하여 모형수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그들은 모형수정방법 대신에 동시에 다른 다중 표집을 하여 각 표집에 각 모형을 검증하는 과정과 사전 다중 모형에 의한 경합모형 검증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모형수정을 통한 모형찾기는 시도하지 않았으며 사전 다중 표집을 하여 각 표집에 각 모형을 검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즉 전체자료 중 홀수 번호 279명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모형의 부합도를 검증하였으며, 짝수번호 275명의 자료를 가지고 연구모형의 교차타당화를 실시하였다.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하여 확인된 경로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지지가 조절변인으로서 작용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절적 중다회귀분석(Multiple Moderating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Aiken & West, 1991). 즉 1단계에서 공변량 구조모형을 통하여 확인된 선행변인을 예언변인과 조절변인이 준거변인을 예측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고(예, 예언변인-우울, 조절변인-문제해결력, 준거변인-자살생각), 2단계에서는 예언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항(우울×문제해결력)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회귀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런데 인위적인 예언변인과 조절변인의 상호작용 항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center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각 예언변인과 조절변인의 평균값을 감하여 각 값들이 0에 가깝게 만들어서 예측변인, 조절변인, 예측변인×조절변인 간의 상관의 크기를 감소시켜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감소시켰다(Aldwin, 1994). 상호작

용 항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때는 Cohen(1988)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조절효과의 유의미성 정도인 f^2 값이 Cohen의 임계치인 .02보다 큰 경우에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예, Aguinis & Stone-Romero, 1997; Li & Hammer, 1998).

4. 연구결과

1) 연구변인들 간의 관계

자아정체감, 우울, 인지적 와해, 자살생각, 사회적 지지 및 문제해결력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 및 평균

변인	1	2	3	4	5	6
1. 자아정체감	—					
2. 우울	.44***	—				
3. 인지적 와해	.55***	.57***	—			
4. 자살생각	.37***	.54***	.51***	—		
5. 사회적 지지	-.39***	-.32***	-.35***	-.25***	—	
6. 문제해결력	-.64***	-.33***	-.44***	-.31***	.32***	—
평균()	131.36	16.46	11.48	11.36	84.61	116.71
표준편차()	28.25	9.34	7.40	13.38	14.50	16.73

주. N=554. * $p < .05$. ** $p < .01$. *** $p < .001$

<표 1>에 제시되었듯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자아 정체감, 우울, 인지적 와해와는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 = .37, p < .001, r = .54, p < .001, r = .51, p < .001$). 반면, 사회적 지지 및 문제해결력과는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r = -.25, p < .001, r = -.31, p < .001$).

따라서 청소년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및 인지적 와해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

* $f^2 = (R^2_{y1, x1\ x2\ x1x2} - R^2_{y1, x1\ x2}) / (1 - R^2_{y1, x1\ x2\ x1x2})$

년이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을수록, 문제해결력 수준이 낮을수록 자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아정체감,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자살생각 간의 관계

가. 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형에 대한 부합도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의 가설적 모형이 매우 잘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4, N=279) = 19.70, p > .05, NNFI = .991, CFI = .996, RMSEA = .038$].

<표 2> 가설적 모형의 부합도(N = 279)

모형	χ^2	df	p	NNFI	CFI	RMSEA
설정모형	19.70	15	.140	.991	.996	.0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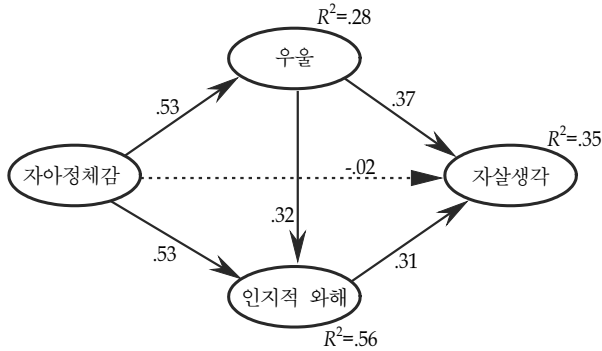
주. NNFI = non-normed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이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구조경로 분석결과가 <표 3>과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가설적 모형의 구조경로(N = 279)

준거변인 예언변인	비표준화된 추정치(표준오차) (Unstandardized(SE))	표준화된 추정치 (Standardized)	고정지수 (t-value)	다중상관지수 (SMC)
우울				.28
자아정체감(γ_{11})	.54(.07)	.53	7.40**	
인지적 왜해				.56
자아정체감(γ_{21})	.59(.08)	.53	7.56**	
우울(β_{21})	.35(.07)	.32	4.96**	
자살생각				.35
자아정체감(γ_{31})	-.02(.09)	-.02	-.24	
우울(β_{31})	.37(.08)	.37	4.89**	
인지적왜해(β_{32})	.29(.09)	.31	3.33**	

주. 양방검증, * $p < .05$. ** $p < .01$



<그림 1> 자아정체감,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자살생각 간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이들이 지각하는 우울증상과 인지적 왜해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53, t = 7.40, p < .01, \beta = .53, t = 7.56, p < .01$). 그러나 자살생각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2, t = -.24, p > .05$).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은 인지적 왜해와 자살생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beta = .32, t = 4.96, p < .01, \beta = .37, t = 4.89, p < .01$). 그리고 청소년의 인지적 왜해는 자살생각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1, t = 3.33, p < .01$).

<표 3>과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연구의 가설적 모형의 구조모형이 청소년이 지각하는 우울 변량의 28%를, 인지적 왜해 변량의 56%를, 자살생각 변량의 35%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자살생각 수준이 이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잘 예측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전체 효과가 <표 4>에 분해되어 있다.

<표 4>에는 <표 3>에서 확인된 유의한 가설적 경로들만을 가지고 전체효과를 분해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각 변인의 직접효과는 총

<표 4>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의 분해

경로	모형추정치
자아정체감 → 우울 → 자살생각(.53×.37)	.20
자아정체감 → 인지적 와해 → 자살생각(.53×.31)	.16
자아정체감 → 우울 → 인지적 와해 → 자살생각(.53×.32×.31)	.05
모든 경로들의 전체 효과	.41

효과 중에서 모형에서 다른 변인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부분이며 각 변인의 간접효과는 총 효과 중에서 다른 변인들에 의해서 매개 되는 부분이다.

청소년들의 경우에 자아정체감 수준이 떨어지면 우울 증상이 심화되어서 결과적으로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자아정체감 수준이 떨어지면 인지적 와해가 더 심화되어서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자아정체감 수준이 떨어지면 우울 증상이 심화되어서 인지적 와해 수준이 더 높아져서 결과적으로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연구의 가설적 모형에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을 증가시키지는 못하고 우울과 인지적 와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살생각을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다.

다. 교차타당화 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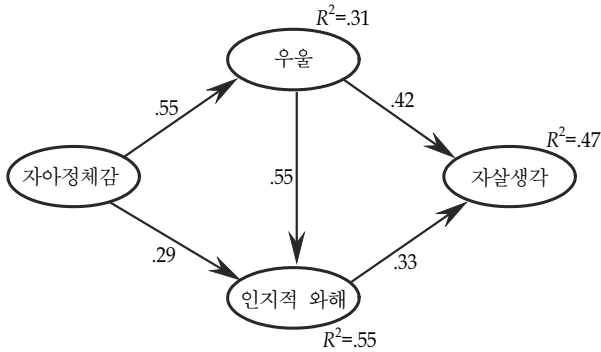
이 연구의 가설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자아정체감은 자살생각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울과 인지적 와해를 통하여 자살생각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교차타당화 모형을 설정하여 전체 표집을 반으로 나눈 27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의 교차타당화 모형은 수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4, N = 275) = 45.14, p < .001, NNFI = .957, CFI = .977, RMSEA = .086$]. 또한 확인된 경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교차타당화 모형의 부합도(N = 275)

모형	χ^2	df	p	NNFI	CFI	RMSEA
타당화모형	45.14	15	<.001	.957	.977	.086

주. NNFI = non-normed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그림 2> 교차타당화 모형의 표준화된 구조모형

1) 자아정체감,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모형검증을 통하여 확인된 자아정체감 → 우울, 자아정체감 → 인지적 왜해, 우울 → 인지적 왜해, 우울 → 자살생각, 인지적 왜해 → 자살생각의 관계를 문제해결력과 사회적 지지가 완충하는 가를 검증한 결과 우울 → 자살생각에 문제해결력이, 인지적 왜해 → 자살생각에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발견되었다.

가.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력의 조절효과

<표 6>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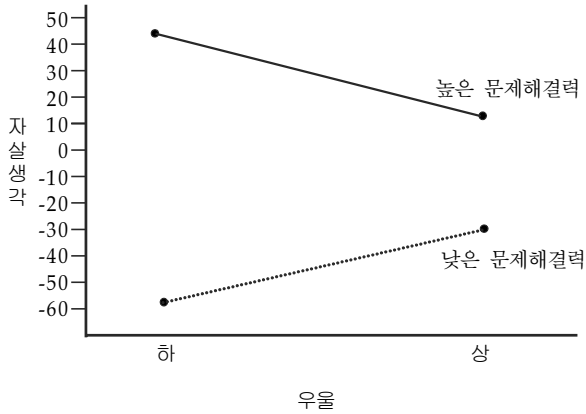
변인	B	β
성별	1.87	.10
R^2		.005
ΔR^2		.005
성별	.62	.02
우울	.70	.49***
문제해결력	-.12	-.15***
R^2		.310
ΔR^2		.305
성별	.66	.02
우울(A)	.67	.47***
문제해결력(B)	-.11	-.14***
조절효과(A×B)	-.01	-.15***
R^2		.334
ΔR^2		.024

* $p < .05$. ** $p < .01$. *** $p < .001$

<표 6>에 제시되었듯이 우울과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문제해결력의 완충효과가 확인되었다($\Delta R^2 = .024$, $\Delta F = 19.45$, $p < .001$). 또한 Cohen (1988)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조절효과의 유의미성 정도인 f^2 는 .036 으로서 Cohen의 임계치(.02)보다 커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즉 문제해결력이 우울이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centering된 우울과 문제해결력 두 변인 각각의 최고점수와 최하 점수를 중다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자살생각의 예측 값을 산출한 2개의 회귀식을 유도한(Howell, 2002)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문제해결력이 낮은 청소년 집단은 우울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문제해결력이 높은 청소년 집단은 우울수준이 높아져도 자살생각이 감소하는



<그림 3> 우울과 문제 해결력의 상호작용 효과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제해결력이 우울로 인한 자살생각의 증가를 완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인지적 와해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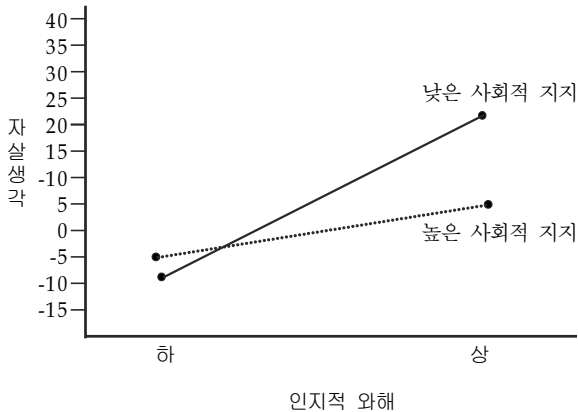
변인	B	β
성별	1.87	.10
R^2		.005
ΔR^2		.005
성별	2.25	.08*
인지적와해	.87	.46***
사회적지지	-.08	-.09*
R^2		.273
ΔR^2		.268
성별	2.20	.08*
인지적와해(A)	.85	.47***
사회적지지(B)	-.07	-.08
조절효과(A×B)	-.014	-.13***
R^2		.290
ΔR^2		.027

* $p < .05$. ** $p < .01$. *** $p < .001$

나. 인지적 와해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표 7>에 제시되었듯이 인지적 와해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가 확인되었다. $\Delta R^2 = .027$, $\Delta F = 11.19$, $p < .001$. 또한 Cohen(1988)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조절효과의 유의미성 정도인 f^2 는 .038로서 Cohen의 임계치(.02)보다 커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즉 사회적 지지가 인지적 와해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절효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centering된 인지적 와해와 사회적 지지 각각의 최고점수와 최하 점수를 중다회귀방정식에 대입하여 2개의 회귀식을 유도한(Howell, 2002) 결과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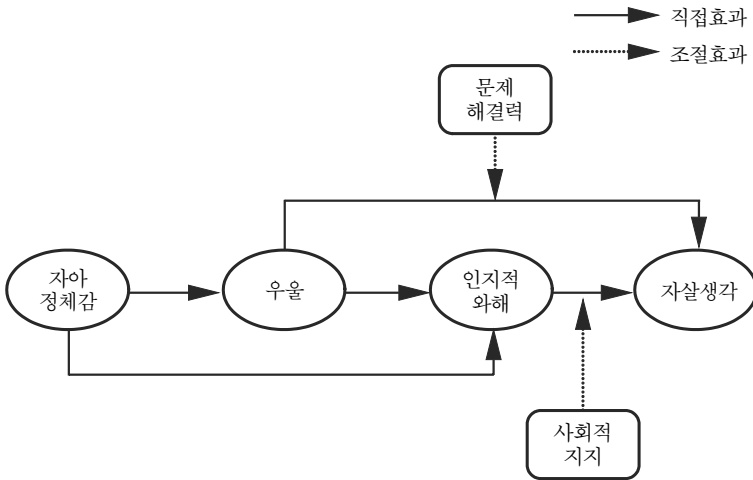


<그림 4> 인지적 와해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 청소년 집단은 인지적 와해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생각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청소년 집단은 인지적 와해 수준이 높아져도 자살생각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인지적 와해로 인한 자살생각의 증가를 완충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논의

이 연구는 자살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의사결정과정으로 보는 Baumeister의 “자살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자기도피이론 6단계”에 의거하여 청소년이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 그 이유를 자신의 특성에 귀인시켜 결국에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낮은 자아정체감이 형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낮은 자아정체감이 부정적인 정서인 우울을 유발하고, 이 우울이 인지적 와해상태를 초래하여 최종적으로는 자살에 이르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현실적 자료와 부합되는지를 확인해보고, 부족할 때 청소년 자살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는 문제해결과 사회적 지지가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으며, 그 검증 결과가 <그림 5>에 도해되어 있다.



<그림 5> 이 연구에서 확인된 자살생각 유발 경로 및 문제 해결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이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낮은 자아정체감이 우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아정체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Jung(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자아 정체감이 우울을 통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한 윤성림과 윤진(1993) 및 박현숙(200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정적 자기인식인 낮은 자아정체성이 직접적으로 인지적 와해상태를 유발하지 않고, 부정적 정서인 우울을 유발하고 이 우울이 다시 인지적 와해상태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Baumeister의 “자살에 이르는 과정으로서의 자기도피이론에 가정한 단계적 변화와 일치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둘째, 낮은 자아정체감과 우울이 인지적 와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우울이 인지적 와해를 통하여 자살생각에 이르는 것을 확인한 정영주와 정영숙(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청소년의 개인적 취약요인인 자아정체성 부족 및 우울과 자살생각 간에 인지적 와해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이 연구는 우울의 인지적인 증상인 절망, 즉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살과 가장 관련이 있다고 한 Beck 등(1979) 주장과 인지적 와해가 핵심개념인 Baumeister의 자살이론이 타당함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여겨진다.

셋째,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문제해결력이 완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와해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완화시키는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청소년들의 자살은 이들이 자살을 일으킬만한 촉발 사건을 경험할 때, 이에 대한 내적영향력이 자신의 통제력을 넘어서게 되면 자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에 의거해서 설명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결과는 대인관계 문제나 갈등이 발생할 때 대인관계 문제 해결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의 경우에 자살을 하는 것을 발견하여 문제해결기술의 부족이 자살의 촉발요인임을 밝힌 바 있는 Levenson과 Neuringer(1971)의 연구결과, 자살시도 위험이 높은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아왔으며, 사

회적 지지가 자살행동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De Wilde, Kienhorst, Diekstra, & Wolter, 1994; Kandel et al., 1991; Morano, Cisler, & Lemerond, 1993; Rudd, 1990을 정영주·정영숙, 2007, 재인용) 및 친구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이 인지적 왜해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영주와 정영숙(2007)의 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김기환과 전명희(2000)는 신문기사를 분석하여 청소년 자살유형을 구분한 결과,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개인적, 가족환경적 및 사회환경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취약형 자살유형이 33.3%이고 평소에 자살할만한 취약성 요인들이 거의 두드러지 않은 상태에서 촉발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자살하는 충동형(28.4%)과 촉발사건 이후 3일 이내에서부터 수개월 내에 충격적 사건이 있는 후에 이에 대해 고민해오다 문제해결의 대안을 찾지 못하고 절망감을 경험하면서 자살하게 된 지연형(22.7%)의 사건반응형 자살이 51.5%를 차지하며, 취약성 요인을 배경으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가 자살을 촉발하는 사건이 일어나 상승작용을 하면서 자살을 하게 되는 복합형 자살이 15.6%임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연형의 사건반응형 자살은 학교나 가정을 통해 이들에게 미리 개입하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교사나 상담자가 적절하게 문제해결식 접근에 의거하여 상담적 개입을 실시하면 자살발생율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여겨진다. 즉 자살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너무나 압도당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지혜롭지 못한 수단으로 문제를 풀어 보려 애쓰거나 문제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데, 자신의 문제를 더 이상 손쓸 수 없고 스트레스에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 부적응적 문제해결책인 자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Ellis & Newman, 1996/2005). 결국 청소년의 자살행동의 대부분은 사회심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편이나 현실도피의 충동적 행동, 또는 자신의 급박한 정서상태와 절실한 요구를 알리는 신호로 볼 수 있다(Blau & Gullotta, 1995).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문제해결과정에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실행하는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문제

해결식 접근이 자살 행동의 주요 치료적 접근법인데, 이 연구결과는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자살 위험성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문제해결식 접근을 통한 상담적 개입이 효과적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것으로 여겨진다.

자살예방은 Caplan의 분류에 따라서 자살로 이끄는 조건들을 사전에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들로 이루어진 일차적 예방, 자살사고나 행동들에 대해 즉각적인 중재와 치료를 제공하는 이차적 예방, 일단 자살이 발생한 후에 자살시도자의 치료와 재적응을 돕거나, 완성된 자살 후 주변인들의 외상과 애도를 다루는 삼차적 예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학교에서 행해지는 대부분의 자살예방 노력은 이차적 예방, 즉 자살의 위험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이들이 자살시도나 완성된 자살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전략들로 이루어져 있다(Poland, Pircher, & Lazarus, 1995; McWhirter et al., 2004를 이승연, 2007, 재인용).

그런데 청소년들은 자살생각이 들었을 때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주로 친구나 부모이며 전문적 도움요청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정철순 외, 2001; Hesketh et al., 2002) 자살관련 징후에 관련된 부모교육 및 학생교육의 실시와 아울러 이들과 연계한 전문적 상담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학교상담현장에서는 자살 위험성이 높은 학생을 가정과 학교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하여 조기에 발견해서 조속히 개입하여 자살시도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실증적 자료를 통하여 학교상담자들이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진단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문제해결력을 높여주는 상담전략이 인지적 외해 상태가 심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들과 가족들의 사회적 지지를 높여주는 상담전략이 자살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고등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청소년 전체에 대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다. 향후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들을 통해서 이 연구

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이 재확인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취약성 요인으로서 자아정체성만을 다루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개인 취약성 요인(예, 탄력성, 자존감 등)과 환경적 취약성 요인(가정, 학교환경의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횡단적 자료를 통한 모형을 검증하였는데, 횡단적 자료를 통한 인과관계 추론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종단적 자료수집을 통하여 본 모형의 타당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청소년 백서 2005』. 국가청소년위원회.

고재홍·윤경란. 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살생각: 자아탄력성의 완충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8(1): 185-212.

김경희. 1998. “비행청소년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서울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기환·전명희. 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지』 9(1): 127-152.

김순홍 외. 2007a. 『한국 청소년의 삶 : 학교생활·가정생활·여가생활』. 한국사회조사연구소.

김순홍 외. 2007b. 『한국 청소년의 사회심리와 일탈행위』. 한국사회조사연구소.

김순홍 외. 2007c.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 한국사회조사연구소.

김연수. 1995. “정신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와 사회지지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형수. 2006. “생애주기별 자살 현황과 예방 대책: 노인과 청소년 자살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4: 271-292.

- 민병근 · 이길홍 · 이재광 · 김현수 · 박두병 · 나철 · 박광식. 1986. “학생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자살 양상에 관한 사회 정신의학적 연구.” 『한국의과학지』 18(1): 20-29
- 박병금.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요인: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06-522.
- 박아청. 1996. “한국 청소년의 정체감 발달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 68-78.
- 박아청 · 이승국. 1999.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 분석.” 『교육심리연구』 13(4): 1-33.
- 박지원. 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현숙. 2007.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우울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 『정신간호학회지』 16(2): 103-112.
- 신민섭 · 박광배 · 오경자 · 김중술. 1990.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신민섭. 1993. “자살 기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 자기 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진 · 조성호. 2004. “청소년 자살 고위험 집단의 심리적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4): 667-685.
- 이승연. 2007. “청소년 자살에 대한 고등학교 교사의 지식과 오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2): 97-117.
- 이윤주. 2008. 『청소년 자살상담』. 학지사.
- 이장호 · 정남운 · 조성호. 2005. 『상담심리학의 기초』. 학지사.
- 임현우 · 이동귀 · 박현주. 2004. “한국판 문제해결질문지. 한국상담심리학회 Dr. Heppner 초청 특별 심포지움 상담에서의 문제 해결 발표 논문.” 12월 18일. 서울: 서강대학교 이나시오관. 미간행.

- 전경구·최상진·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 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양치식. 1999. “가출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비교 연구.”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성립·윤진. 1993. “청소년기 자살 생각과 그 관련 변인: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특성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1): 107-120.
- 임수영. 1996. “중학생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완충 효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식·오세진. 1999. “청소년 자살과 예방” 『사회과학연구』 12: 141-158.
- 정영주·정영숙. 2007. “청소년의 자살 생각과 관련된 우울, 인지적 왜해 및 친구지지 간의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0(1): 67-88.
- 정철순·임숙빈·고효진. 2001. “청소년의 자살 위험에 관한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0(4): 521-532.
- 하상훈. 2000. “청소년의 자살 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홍강의. 2008. “소아·청소년의 자살.” 『자살의 이해와 예방』. 한국 자살예방협회 편. pp. 359-379.
- 「서울신문」 2007. 10. 1. “7년간 초·중·고생 자살자 764명.”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71001008007&code=seoul&keyword=청소년%20자살>>
- 「서울신문」 2008. 8. 25. “중고생 23% 자살 생각해 봤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728010011>>
- 「동아일보」 2007. 10. 16. “청소년 정신질환 발생 급증.” <<http://www.donga.com/fbin/output?sfrm=4&n=200710160365>>
- Aguinis, H., & E. F. Stone-Romero. 1997. “Methodological Artifacts in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and Their Effects on Statistical Powe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2: 192-206.

- Aiken, L. S., & S. G. West.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CA: Sage.
- Aldwin, C. M. 1994. *Stress, Coping, and Development: An Integrative Perspective*.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DSM-IV)*. Washington, DC: Author.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eck, A. T., Kocacs, M., & A. Weissman. 1979. "Assessment of Suicide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Beevers, C. G., & I. W. Miller. 2004. "Perfectionism, Cognitive Bias, and Hopelessness as Protective predictors of Suicidal Ideation."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4: 126-137.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 Browne, M. W., & R. Cudeck.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pp.136-162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CA: Sage.
- Blau, G. M. & T. P. Gullotta. 1995. *Adolescent Dysfunctional Behavior: Causes, Interventions, and Prevention*.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alhoun, J. F. 1972. *Abnormal Psychology*. New York: Random House.
- Calson, G. A., & D. P. Cantwell. 1982. "Suicide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of child psychiatry*. 21: 361-368.

- Canty-Mitchell, J., & G. D. Zimet. 2000.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 Urban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8: 391-340.
- Chang, E. C. 1998. "Cultural Differences, Perfectionism, and Suicidal Risk: Does Social Problem Solving Still Matt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2: 237-254.
- Chioqueta, A. P., & T. C. Stiles. 2005. "Personality Traits and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283-1291.
- Clum, G. A., & M. Lerner. 1990. "A Problem Solving Approach to Treating Individuals at Risk for Suicide." pp. 194-202. In D. Lester (ed.), *Current Concepts of Suicide*. Philadelphia: Charles Press.
- Clara, I. P., Cox, B. J., Enns, M. W., Murray, L. T., & L. J. Torgrude. 200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in Clinically Distressed and Student Samp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1: 265-270.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sorba, J., Rozas, S., Gadoros, J., Vetro, A., Kaczvinszky, E., Sarungi, E., Makra, J., & K. Kapornay. 2003. "Suicidal Depressed vs. Non-suicidal Depressed Adolescents: Differences in Recent Psychopatholog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74: 229-236.
- Dixon, W. A., Heppner, P. P., & W. P. Anderson. 1991. "Problem-Solving Appraisal, Stress,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51-56.
- D'Zurilla, T. J., & A. M. Nezu. 1990. "Development and Preliminary Evaluation of a 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 (SPSI)." *Psychological Assessment*. 2: 156-163.

- D’Zurilla, T. J., & C. F. Sheedy. 1991. “The Relation between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Subsequent Level of Psychological Stress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841-846.
- Ellis, T. E., & C. F. Newman. 1996. *Choosing to Live: How to Defeat Suicide through Cognitive Therapy* (육성필·이혜선 공역. 2005. 『자살하고 싶을 때: 자살의 인지치료』. 학지사).
- Felner, R. D., & M. M. Silverman. 1995. “Suicide Prevention Program: Issues of Design, Implementation, Feasibility, and Developmental Appropriateness.” in *Suicide prevention: Toward the Year 2000* (ed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Greening, L., & L. Stoppelbein. 2002. “Religiosity, Attributional Style,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for African American and White Adolescent’s Perceived Risk for Suicide.”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32: 404-417.
- Groholt, B., Ekberg, O., Wichstrom, L., & T. Haldorsen. 2000. “Young Suicide Attempters: A Comparison between a Clinical and an Epidemiological Sampl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9: 868-875.
- Gutierrez, P., Rodriguez, P., & R. Garcia. 2001. “Suicide Risk Factors for Young Adults: Testing a Model across Ethnicities.” *Death Studies*. 25: 319-340.
- Harter, S., Marold, D., Whitesell, N., & G. Cobbs. 1996. “A Model of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s and Peer Support on Adolescent False Self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 360-374.
- Heppner, P. P., Kampa, M., & L. Brunning. 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Solving Self Appraisal and Indices of Physical and Psychological Health.”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1: 155-168.

- Heppner, P. P., & C. H. Petersen. 1982.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a Personal Problem-Solving Inventor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9: 66-75.
- Hesketh, T., Ding, Q. J., & R.Jenkins. 2002. "Suicide Ideation in Chinese Adolescents." *Social Psychiatry Psychiatric Epidemiology*.37: 230-235.
- Howell, D. C. 2002. *Statistical Methods for Psychology* (5th ed). Pacific Grove, CA: Duxbury.
- Jahoda. 1958. *Current Concepts of Positive Mental Health*. New York: Basic Books.
- Jöreskog, K. G., & D. Sörbom. 1993. *LISREL 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Scientific Software.
- Joung, H. G. 1998. "Effects of Parental Unemployment on Children's Depression and Ego-Ident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elly, T. M., Lynch, K. G., Donovan, J. E., & D. B. Clark. 2001. "Alcohol Use Disorders and Risk Factors Interventions for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Suicide and Life Treatment Behavior*. 31: 181-193.
- King, R. A., Schwab-Stone, M., Fisher, A. J., Greenwald, S., Kramer, R. A., Goodman, S. H., Lahey, B. B., Shaffer, D., & M. Gould. 2001. "Psychosocial and Risk Behavior Correlates of Youth Suicide Attempts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837-846.
- Ladme, E., & O. Jeanneret. 1982. "Suicide in Adolescence: Some Comments on Epidemiology and Prevention." *Journal of Adolescence*. 5: 355-366.

- Levenson, M, & G. Neuringer. 1971. "Problem-Solving in Suicidal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7: 433-436.
- Li, F., & P. Harmer. 1998. "Modeling Interaction Effects: A Two-Stage Least Square Example." pp. 153-166 In R. E. Schumacker and G. A. Marcoulides (eds) *Interaction and Nonlinear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cCallum, R. C., Roznowski, M., & L. B. Necowitz. 1992. Model Modification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The Problem of Capitalization on Chance. *Psychological Bulletin*. 111: 490-504.
- Maruyama, G. M. 1998. *Basic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Marsh, H. W., Balla, J. R., & R. P. McDonald. 1988. "Goodness-Fit Indexes in Confirmation Factor Analysis: The Effect of Sample Size." *Psychological Bulletin*. 103: 391-411.
- Mazza, J. J., & W. M. Reynolds. 1998.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Depression, Hopelessness, Social support, and Major and Minor Life Events and Their Relation to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8: 358-374.
- McGee, R., & S. Williams, S. 2000. "Does Low Self-Esteem Predict Health Compromising Behavior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ce*. 23: 569-582.
- McGee, R., Williams, S., & S. Nada-Raja. 2001. "Low Self-Esteem and Hopelessness and Childhood and Suicidal Ideation in Early Adulthood." *Journal of the Abnormal Child Psychology*. 29: 281-291.
- Metha, A., & E. H. McWhirter. 1997. "Suicide Ideation, Depression, and Stressful Life Events among Gifted Adolescents." *Journal for Education of the Gifted*. 20: 284-304.
- Miller, J. P. 1975. "Suicide and Adolescence." *Adolescence*. 10: 11-24.

- Osman, A., Downs, W., Kopper, B., Barrios, F., Baker, M., Osman, J., Besset, T., & M. Linnehan. 1998. "The Reason for Living Inventory for Adolescents (RFL-A):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4: 1063-1078.
- Osman A., Gutierrez, P. M., Muehlenkamp, J. J., Dix-Richardson, F., Barrios, F. X., & B. A. Kopper. 2003. "Suicide Resiliency Inventory-25: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Properties." *Psychological Reports*. 38: 846-851.
- Pfeffer, C. R. 1981. "The Family System of Suicidal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35: 330-341.
- Priester, M. J., & G. A. Clum. 1993. "Perceived Problem-Solving Ability as a Predictor of Depression, Hopelessness, and Suicide Ideation in a College Pop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79-85.
- Printz, B. L., Shermis, M. D., & P. M. Webb. 1999. "Stress-Buffering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 Coping: A Path Analysis." *Adolescence*. 34: 715-734.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eynolds, W. M. 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utter, P. & A. Behrendt. 2004. "Adolescent Suicide Risk: Four Psychosocial Factors." *Adolescence*. 39: 95-302.
- Rutter, P. A. & D. Estrade. 2006. "Suicid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re There Differences among Young Adults?" *Guidance & Counseling* 21: 89-96.
- Rutter, P. & E. Soucar. 2002. "Youth Suicide Risk and Sexual Orientation." *Adolescence*. 37: 289-299.

- Schotte, D. E., & G. A. Clum. 1982. "Suicide Ideation in a College Population: A Test of a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690-696.
- Schotte, D. E., & G. A. Clum. 1987. "Problem Solving Skills in Suicidal Psychiatric 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49-54.
- Silvia, E. S. M., & R. C. MacCallum. 1988. "Some Factors Affecting the Success of Specification Search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3: 297-326.
- Sprito, A., Valeri, S., Boergers, J., & D. Donaldson. 2003. "Predictors of Continued Suicidal Behavior in Adolescents Following A Suicidal Attempt."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 284-289.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 173-180.
- Steinhausen, H., Bosiger, R., & C. W. Metzke. 2006. "Stability, Correlates, and Outcome of Adolescent Suicidal Risk."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 713-722.
- Stewart, S. M., Felice, E., Claassen, C., Kennard, B. D., Lee, P. W. H., & G. Emslie. 2006. "Adolescent Suicide Attempters in Hong Kong and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 Medicine*. 63: 296-306.
- Stewart, S. M., Kennard, B. D., Lee, P. W. H., Mayers, T., Hughes, C. W., & G. Emslie. 2005. "Hopelessn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in Two Cultur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46: 364-372.
- Weissman, M. M., Bland, R. C., Canino, G. J., Faravelli, C., Greenwald, S., Hwu, H. G., Joyce, P. R., Karam, E. G., Lee, C. K.,

- Lellouch, J., Lepine, J. P., Newman, S. C., Rubio-Stipec, M., Wells, J. E., Wickramaratne, P. J., Wittchen, H., & E. K. Yeh. 1996. "Cross-National Epidemiology of Major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6: 293-299.
- Wild, L. G., Flisher, A. J., & C. Lombard. 2004.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Depression and Six Domains of Self-Esteem." *Journal of Adolescence*. 27: 611-624.
- Wilson, K. G., Stelzer, J., Bergman, J. M., Kral, J. N., Inayatullah. M, & C. A. Elliot. 1995. "Problem Solving, Stress, and Coping in Adolescent Suicide Attemp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5: 241-245.
- Wodarski, J. S., & P. Harris. 1987. "Adolescent Suicide: A Review of Influences and the Means for Prevention."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32: 477-485.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World Health Report, 2001. Burden of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http://www.who.int/whr/2001/chapter2/en/index6.html>>

이은희는 전남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한국심리학회에서 소장학자 논문상(2000)을 수상한 바 있으며, 주요 연구로는 "청소년의 불안정 애착과 문제행동: 공감능력의 조절역할"(2008),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불안/우울 및 강박증과 진로미결정: 자기통제력과 사회적 지원의 매개역할"(2008), "청소년들의 가정, 학교, 지역의 심리사회적 환경과 학교폭력과 관계: 분노조절과 비행친구 접촉의 매개효과"(2004), "Exposure to Media Violence and Bullying at School: Mediating Influences of Anger and Contact with Delinquent Friends"(2004) 등이 있다. 2008년 제8회 『사회연구 학술상』에서 조윤자와 함께 장려상을 받았다.

조윤자는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석사(상담심리전공)를 받았으며 함안 여자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다. 2008년 제8회 『사회연구 학술상』에서 이은희와 함께 장려상을 받았다.

[2008. 3. 31. 접수; 2008. 9. 28. 채택]

